

지맵, 몰입형 사운드 아트

광주시립미술관

‘Good Day, Good Night’

‘여행! 지금 떠납니다’ 전

박상화 작가 초대전 ‘소요풍정’

김은경·임현채·정승원 등



지맵에서 만나는 작품 ‘Good Day, Good Night’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미술관으로~

“바깥에 비가 올 거 같아.”
 “그런가요. 저는 실내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 MAP) 전시장에서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건 노진아 작가의 작품 ‘테미스, 버려진 AI’다. 인간이 되고 싶다는 질문에, 배가 고프냐는 질문에 그는 다양한 대답을 들려줬다. 인간화를 꿈꾸는 로봇과 대화하며 기계와의 감정적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 앞에서 관람객들은 신기한 듯 너도 나도 질문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거운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맵(G.MAP)은 6월 끝난 개관 기념전 ‘디지털 공명’전에서 선보였던 작품들을 일부 선별해 다시 전시 중이다. 또 미디어아트스트 박상화 작가의 작품도 새롭게 설치했다.
 4전시실에서 만나는 작품 ‘Good Day, Good Night’는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몰입형 실감 콘텐츠 작품이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고양이, 들뜬 기린, 화려한 꽃 등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미디어 아트와 작곡가이자 가수 하림의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행복을 전해준다.
 영상이 흐르는 벽면을 손으로 터치하면 쏟아지는 영상과 음악을 듣기 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관람

객들은 그림을 따라가며 마치 정원을, 숲속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전시에 참여하며 작품 속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된다.
 특히 작품은 발달장애인 박해신, 권한솔, 이다래, 양시영 작가의 회화 작품을 모티브 삼아 몰입형 미디어아트 제작그룹인 이지위드의 뉴미디어 기술지원팀이 제작했다. 제작진은 박해신, 권한솔의 작품을 풀라주해 낮 풍경을 구성하고, 이다래, 양시영의 작품들로 밤의 풍경을 완성했다. 관람객은 화면에 투사되는 18대의 프로젝션을 통해 다양한 풍경과 마주하고 벽면에 투사되는 온갖 꽃들과 동물들을 선택해서 터치하는 순간 숨겨진 사운드와 풍경이 펼쳐진다.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여행! 지금 떠납니다’ 전



박상화 작가의 ‘소요풍정’

그밖에 한드레아스 슬레겔의 ‘머신드림’, 권두영의 ‘이상-한 5-18’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제1전시실에서 만나는 박상화 작가 기획 초대전 ‘소요풍정(消搖風情)’은 사람과 자연의 어우러짐을 이야기하는 미디어아트다. 그의 대표작 ‘사유의 정원’ 시리즈와 연장선에 있는 작품으로 아파트 숲의 어느 밤 풍경에서 시작하는 작품은 대숲을 거쳐 소재원 광풍각, 죽녹원을 거쳐 무등산 절경으로 이어진다. 여름날 쏟아지는 빗소리가 귀에 감기고 붉은 단풍잎에 눈이 즐거워지고, 쏟아지는 흰눈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전시장 천장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메시 스크린에 자연 풍광이 담긴 형상을 맵핑한 작품으로 전시장 바닥에 놓인 빈백에 편안히 앉아 사계절의 변화하는 풍경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하기 좋다.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는 즐거운 체험이 함께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여행! 지금 떠납니다’ (2023년 6월25일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작품과 체험을 통해 자유롭게 여행의 기분을 느껴보는 전시다.

2일 찾은 전시장에서는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 관람객은 물론 성인들도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공항의 대기자, 검색대 등을 연상시키는 전시장 구성은 흥미롭고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행의 설렘을 느꼈다.
 김은경 작가는 꿈 속 여행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뾰족한 가시가 있는 물고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시어’를 비롯해 ‘독수리와 달팽이’는 몽환적인 색채와 움직임으로 관람객들을 색다른 여행의 세계로 데려간다.
 정승원 작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즐거운 기억들에 관한 내용을 담은 판화작품을 선보인다. 아쿠아리움, 강으로 뛰어드는 아이들, 가족들의 단란한 저녁 식사, 갓 구운 빵과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 등 다양한 풍경을 만나고 작품마다 꼭 등장하는 작가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임현채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경쾌하고 화려한 색을 가진 사람들이 얽히고설킨 모습은 무거운 짐이지만 무겁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특히 기존의 작품과 달리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행진’은 강렬한 인상을 준다.
 노상준 작가는 마치 리프트를 타고 전시장을 조감하듯 작품을 설치했으며 박준범 작가는 일상의 풍경을 입체 공간으로 제작하고 이를 영상 비디오프로 활용했다.
 이번 전시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체험물을 제작해 설치했다. 전시장에서는 캐리어 입체 가방 만들기, 스트링 아트로 여행지를 계획해보는 체험, 도시여행 속 건축물과 레일 자동차 체험, 아마존 숲 속 동물들을 그려 보고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이를 볼 수 있는 체험 그리고 북극의 이글루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거기서 뭐하세요’ 연작

GB작가스튜디오탐방, 문선희 작가 만나다

올해 다섯 번째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문선희 작가를 만났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문작가 작업실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은 문작가가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 등을 작업 주제로 선택한 이유,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 등에 대한 인터뷰와 대표작품 소개로 구성됐다.
 문작가의 대표작으로는 살처분 매몰지를 주제로 한 ‘물다’ (2015), 5·18민주화운동 당시 초등

학생이었던 이들의 기억을 시각화한 ‘물고, 문지 못한 이야기’ (2016·2021), 고공농성 장소를 기록한 ‘거기서 뭐하세요’ (2019) 연작 등이 있다. 문작가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MaytoDay’ (2021) 등에 참여했으며 제22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2021)을 수상했다.
 작가에 대한 탐문 취재를 위해 파리 1대학에서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미술문화팩토리 아트파트너 대표를 맡고 있는 윤익씨가 작가에 대한 비평을 썼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계림 초교 통학로 조성 설명회

광주디자인진흥원(송진희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 시행한 ‘2022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의 일환인 ‘안전하고 행복한 계림 초교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오후 4시 계림초교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학부모회, 주민자치회 등 주요 이용자와 관계 기관 및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 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번 사업에서는 어린이 드림존 등의 보행안전 사업, 스마트 시티 등의 보행 편의 사업, 석축 개선 등의 가로 디자인 사업 등에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사업을 총괄하는 정성구 총감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 마을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 디자인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 타악 무대’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4일 빛고을국악전수관

풍물연희예술단 광대(사진)가 제 707회 목요열린국악한마당(4일 오후 4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전통타악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광대는 전통타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창작활동을 통해 전통연희예술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기여하는 전문공연 예술단체다.
 이번 공연은 “風舞(풍무)”를 주제로 歌(가), 舞(무), 樂(악)을 총체적으로 구성해 관객들로 하여금 정통 풍물 공연의 진수를 보여 줄 예정이다.
 액을 쫓고 복을 비는 ‘남도 마당밧기 소리’와 경기



비나리’를 시작으로 ‘태평소와 사물놀이’, 남도우드설장구를 대표하는 ‘김오채류 설장구’와 전통연희놀이의 정수인 ‘바나와 죽방울’, 전통무용 ‘살풀이’, ‘사물판굿’ 등을 공연한다.

관람료 무료. 매회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서비스된다.
문의 062-350-455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책들이도서관 여름소동’

27일까지 방학프로그램 진행

책들이도서관(광주시 북구 오치동)이 오는 8월 27일까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책들이도서관 여름소동’이라는 주제로 도서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자는 뜻을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도서관 2층은 ‘숲속 캠핑장’을 모티브로 파라솔과 인디언 텐트를 설치했다. 3층 ‘바다 캠핑장’에는 풀장과 해먹, 에어베드, 보드게임을 마련해 마치 아이들이 바다로 피서 온 듯한 느낌을 들도록 했다.
 북극레이선 코너도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전시 도서 일부는 시립시각도서관과 업무협약으로 대출한 도서로 큐레이션 주제는 여름 맞춤 으스스한 이야기, 비, 먹거리, 놀거리, 휴가 등이다.
 아울러 책들이 빙수쿠폰을 발행한다. 방문객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주기’, ‘책 읽고 한마디 쓰기’,



‘사서를 이겨라 빙고 게임’, ‘책 대출하기’, ‘친구가 가족과 함께하기’ 미션을 수행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종이접기, 보드게임, 만들기 등 더위를 피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카페 책들이도서관에서 확인. 문의 062-266-7279.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